



‘막걸리’

원경은 자유방송작가

얼마 전에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가 택배를 보내셨다. 며칠 전 하셨다는 김장 김치와 깨끗하게 수선한 겨울 코트를 보내오신 거다. 토요일 낮에 늘어지게 낮잠을 자다 택배 기사의 초인종 소리에 부스스 나가 택배 박스를 킁킁대며 안고 들어오는데 박스 안에서 뭔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신발장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박스를 열어봤더니 겨울 코트 사이에 유리병 몇 개가 수건에 쌓여 들어 있었다. 매실주였다! 평소 막내딸이 술 마시는 걸 질색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웬일인가 싶어 냉큼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술을 다 보내주고 뭐 일이라? 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시나 봐. 흐흐” 매실 엑기스라고 우기는 어머니에게 직접 병뚜껑을 따서 마셔보는 시음회까지 들려주자 그제야 펄쩍펄쩍 난리가 났다. 추석 때 선물세트로 들어온 매실주를 어머니는 박스에 적혀 있는 매실의 효능의 관한 글만 읽고는 매실 엑기스라고 굳게 믿으신 거다.

수화기 너머로 옆에 계시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박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찬장에 숨겨놓은 술이 어디 갔나 했더니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날름 막내에게 보낸 거냐며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셨다. “애한테 술 마신다고 만날 뭐라고 하더니, 잘 한다 이 사람아. 그거 내가 아껴 먹으려고 숨겨둔 건데 일부러 그랬지”, “내가 미쳤다. 애한테 술 뺏긴게 그렇게 아까워, 이 양반아.” 신경질에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어머니를 더 놀려주고 싶어서 “어머, 묵은 지도 보냈네, 울 엄마 센

스쟁이! 김치 부침개 부쳐가지고 낫술 한 잔 하라고? 근데 매실주가 아니라 막걸리를 보냈어야지. 올 엄마가 술 센스는 좀 떨어지시네"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약 올라하면서도 한꺼번에 다 마시지 말라고 한참 다짐을 두신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보니 정말 고향집에서 먹던 막걸리 생각이 간절해졌다. 어머니가 부쳐주시는 부침개랑.

사실 우리 어머니는 음식 맛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주는 객관적으로 없는 분이시다. 뭐, 누가 뭐래도 '음식은 정성' 아닌가(부디 이 글을 어머니가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식구들이 꼽는 '엄마 음식 베스트'는 보리차와 부침개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눈물 나게, 감동적이게 맛있다.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보리차가 음식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마셔보면 그 급이 다르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상하게 엄마가 보내준 똑같은 보리로 물을 끓이는데 그 맛이 안 난다고 나와 언니는 신기해한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어머니 손맛'의 정수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우리한테는 먹다 남은 썩은 보리를 보내는 게 틀림없다, 한참을 낄낄대다 어머니가 주걱을 휘둘러야 멈춘다. 근데 진짜로 엄마의 부침개는 일품이다.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인정한다. 강원도에서 너희 어머니만큼 부침개 잘하는 사람을 없을 거라고. 얻어먹는 입장에서 무슨 말을 못할까 싶지만.

여하튼 엄마가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하면

나와 아버지는 이후의 일들에 대해 손발이 척척 잘 맞는다. 아버지는 후다닥 슈퍼에 가서 막걸리를 사오시고 나는 사발 두 개와 청량고추 듬뿍 떨어놓은 간장을 들고 거실에서 대기한다. 엄마의 부침개도 일품이지만 강원도는 막걸리 또한 일품이다. 심심한 감자전에는 달달한 옥수수 막걸리, 감자 막걸리, 좁쌀 막걸리가 어울리고, 맛이 강한 김치전이나 파전에는 시원하고 개운한 쌀 막걸리가 어울린다. 특히 '치악산의 맑은 물과 정기로 빚었다는 막걸리'를 나와 아버지는 가장 사랑한다. 허긴 강원도 막걸리 중 어떤 막걸리가 안 그럴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빚은 막걸리는 값비싼 양주 맛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게 아버지의 지론이시다.

나는 태어나 내내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닮아 술 좋아하는 나를 그때부터 십 년간 한결같이 걱정하셨다. 남의 집 엄마들은 객지 생활 하는 딸에게 늘 '밤길 조심, 차 조심, 남자 조심' 그런다는데, 자신은 왜 '술 조심, 또 술 조심, 그래도 술 조심' 이래야 되는 거냐며 전화로 꾸짖고 한탄을 쏟아놓으시곤 한다.

대학에 들어와 얼마 후 고향인 원주 집에 내려갔을 때였다. 비 오는 날마다 내 생각이 났다며 어머니는 부침개를 잔뜩 해놓으셨다. 어릴 적부터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늘 가게를 일찍 마치고 집에 들어오셔서 부침개를

하셨다. 개띠 아니랄까 봐 골목 어귀에서부터 기름 냄새를 맡고는 “부침개 했어 엄마?” 하고 뛰어 들어오던 딸내미 생각이 났다며, 어머니는 행주치마를 만지며 울컥해하셨다. 통명스러운 강원도 남자인 아버지와 사내 녀석처럼 자라 뻗뻗한 내가 그런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그 즉시 막걸리를 쪽쪽 들이켜기 시작했다. 그새 치악산의 정기가 더 좋아진 건가. 막걸리는 엄청 시원하고 달았다. 막걸리에 살얼음이 동동 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집에 들어올 시간에 맞춰 막걸리를 미리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고 자랑스레 말씀하셨다. 딸내미 맛있게 먹으라고, 나는 사실 이 대목에서 진정 눈물이 날 뻔했다.

술기운이 돌아 없던 애교가 샘솟았다. “아빠, 학교 앞 민속주점에서 선배들하고 막걸리를 마셨는데 맹맹한 게 맛이 없더라고. 사이타 탄다는 게 사실인가 봐. 툭 쏘기만 하고, 뭐랄까 정이 없어. 역시 막걸리는 아빠랑 먹어야 돼.” 기분이 한껏 좋아지신 아버지가 받아치신 말씀이, 타향살이가 살짝 힘에 부쳤던 당시의 내게는 진리였다. “서울 사람들 각쟁이라드니, 술도 각쟁인가 보구먼.” 옆에서 가만 보시던 어머니는 혀를 차셨다. “내가 미쳤지. 어린 딸 술상 봐준 꼴이네.”

이 대목에서 딸이 아버지랑 스스럼없이 술 마시는 걸 보고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내 친구들도 내가 “집에 내려가면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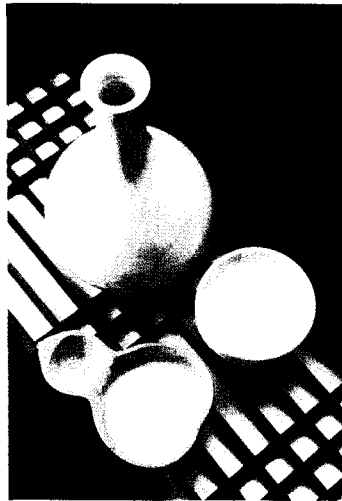
랑 술 마시느라 더 피곤하다”라고 하면 놀라곤 한다. 심지어 “아버지만한 술동무가 없다, 선배나 회사 동료들에게 배운 폭탄주 제조법을 아빠에게 전수하기도 한다”고까지 하면 기겁을 하다가 부러워하기도 한다.

사실 나는 좀 일찍 아버지에게 술을 배웠다. 아버지 말씀은 “어차피 타지로 대학 가면 못된 남자 선배들한테 술을 배울 게 뻔한데, 차라리 나한테 일찍 배워두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물론 어머니 눈에는 아버지가 더 불량해보였겠지만). 아버지는 술을 유쾌하게 드시는 분이다. 평소에는 다소 무뚝뚝하시지만 술을 드시면 어머니에게 애교도 부리시고, 딸들 앞에서 춤도 추신다. 덕분에 술자리는 모름지기 즐거워야 한다는 것을 나는 좀 제대로 배운 편이다.

막걸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막걸리 하면 어머니의 부침개 말고도, 두 가지 강렬한 기억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음복이다. 우리 집은 설날과 추석, 제사 때 차례 상에 청주 대신 치악산의 정기를 듬뿍 담은 바로 그 막걸리를 올린다. 원래 예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님 제사에 맑은 술인 청주를 썼다. 고급술이라 서민들은 평소에 청주를 마시지 못했다고 하는데, 제사 때만큼은 가난한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청주를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옛날 기준으로 치면 우리 집은 그나마도 못하는 최하위 서민층인 셈이고, 조상님께는 면목 없는 후손인 셈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십여 년 전부터 장남의 권한으로 청주 대신 막걸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유인즉슨, 할아버지가 생전에 청주를 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현실 지향적인 아버지의 효심은 심금은 올린다. 제사 음식도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콩치조림, 양갱 등으로 바꾸자고 강력히 주장하셨지만 할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반대로 이쉽게도 아직 실행하지 못하셨다.

명절 아침, 우리 식구들은 제사를 마치고 간단히 음복을 하고 난 후 밥상에 앉아 본격적으로 막걸리로 반주를 하기 시작한다. 말이 반주지, 어쩔 땐 반주에 취해 아침상을 물리고 다 같이 쓰러져 잠들기도 한다. 성묘 갈 생각도 안 하고 부녀가 새해 아침부터 참 잘한다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타박을 하시지만, 이왕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사랑스러운 자장가로 듣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여하튼 상 한쪽에서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들 틈에 끼어 막걸리를 마시는 나를 보며, 할머니와 어머니, 작은 어머니들은 해마다 같은 말씀을 하시곤 했다. “공부하라고 서울 보내놨더니 애가 어찌 점점 이상한 것만 배워오



는 거 같다”는 내용이다. 나라고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고작 일 년에 두세 번 만나는 친척들인데 이때 아니면 언제 술 한 잔 올리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사 음식이라는, 내가 봐도 참 그럴싸한 핑계를 댄다. 고기 산적, 떡, 포, 전…… 이게 다 막걸리 안주인데 안 마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다 여자들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라는 말을 해서 남자 어른들의 든든한 맞장구까지 얻어낸다. 음식 만드느라 고생한 여자들도 한 잔씩 하면서 회포도 풀고 그러면 좋으련만, 불행히도 노동 후의 한 잔이 얼마나 개운한지 구구절절 알려드려도 우리 집 여자들은 술의 즐거움을 알려고 들지를 앓으신다.

바로 이 ‘노동 후 막걸리 한 잔’의 기꺼움을 알게 해준 경험이 막걸리에 관한 내 세 번째 강렬한 기억 중 하나다. 대학교 1학년 때였다. 농촌학생연대활동, 즉 농활이란 것을 여름방학 때 가게 되었다. 그때 우리가 간 곳은 포도 농사로 유명한 경북 상주였다. 포도밭에서 탕 탕하게 여문 파란 포도송이에 종이봉투를 씌우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낮 시간 동안의 주된 일이었다. 후끈한 과수원 안에서 분위

를 띄워보겠다고 아는 트로트를 죄다 합창하며 일을 하다 보면, 갑증으로 목구멍이 폭염속 논바닥처럼 짹짹 갈라지는 느낌이 든다. 그때쯤 들려오는 새참 소식은 반갑기가 딸 부잣집 시어머니 귀에 들리는 득남 소식에 버금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술은 차가워야만 제 맛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술을 절실할 때 가장 맛있다.

과수원 밭 한 귀퉁이에서 직사광선에 달궈진 뜨거운 막걸리 한 통을 들고 오시는 어머님을 보고 우리들은 당황했다. 처음엔 그 엄청난 양에, 나중에 뚜껑을 돌렸을 때 들리던 거센 가스 분출음에. 힘들게 농사하시는 농민분들을 보며 우리가 가슴 깊이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음식을 남기는 건 분명한 죄'라는 것이었다. 막걸리도 당연히 음식이다. 어머님이 따라주시는 뜨거운 막걸리 한 사발을 한 모금이라도 남길 수 없는 노릇이었다. 새참 시간이 끝난 후 어떤 선배는 흥에 겨워 손에 모터가 달린 듯 포도봉지를 씌우기 시작했고, 어떤 친구는 불타는 얼굴을 한 채 한 그루 포도 나무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어떤 친구는 고랑을 침대 삼아 뻗어 있기도 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 마무리도 막걸리와 함께였다. 농활은 단순히 농촌 일손 돕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후에는 여농반, 청년반, 아동반 등으로 나누어 어머니들에게 품을 놓아드리거나, 마을을 돌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했

다. 그리고 밤이 되면 새벽까지 마을 청년들과 모여 그날 일터와 주민들과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 여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마감했다. 그 자리에 막걸리가 빠질 턱이 없었고, 9박 10일간의 농활 기간 내내 매일 반복되었다.

그때 안주는 대게 먹다 남은 김치와 마을 청년들이 집에서 따온 참외나 자두, 앵두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막걸리가 앵두랑 어울린다는 사실에 놀랐다. 상주의 시골 마을에서 마셨던 막걸리는 서울에서 맛보던 막걸리에 비해 묵직하고 텁텁했으며, 고향인 원주에서 마시던 막걸리보다도 도수가 높고 색도 짙고 진했다. 그래서 상큼한 과일과 조합이 맞았던 것 같다. 그런데 근처 양조장에서 그때그때 받아와서 신선하기까지 했다. 지금도 가끔 그때 그 막걸리가 생각나지만 아쉽게도 상표명을 몰라 찾을 수가 없다. 마을 형님들이 막걸리를 한 말들이 통째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뒷병, 주전자 등에 넣어 오시기도 하셨는데, 상표 같은 건 붙어 있지 않았다. 시골에서 술통이란 그저 돌고 도는 물건일 뿐, 제품명을 알리는 데 이바지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그 막걸리를 마신다고 한들 그때 그 맛이 날 리도 없다. 그때 안주가 어디 앵두와 자두뿐이었겠는가, 함께했던 사람들과 우리의 청춘이 가장 달콤한 안주였을 것이다.

지금의 이십 대에게 막걸리는 그리 친근한

술이 아닐 것이다. 나만 해도 대학에 들어와 마신 술은 대개 소주였다. 막걸리가 시인의 밥이었다는 것도, 대학생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진리와 자유를 논했다는 것도 우리 세대에겐 먼 이야기다. 시골 출신인 대학 동창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 심부름으로 막걸리를 받아오던 추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들이 시골에서 나고 자란 특권(?)을 가졌기 때문이지 그런 아름다운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개는 막걸리를 마신 다음 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녀석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보면 나는 막걸리에 대한 꽤나 좋은 추억들이 많은, 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최근 몇 년간 막걸리가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학가에는 막걸리 전문 주점이 쭉쭉 생겼고, 마트에서는 다양한 지역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이제는 친구들에게 막걸리 마시러 가자는 말을 꺼내도 “역시 강원도 아가씨라 그런가, 상당히 토속적이네” 같은 놀림이나 무시는 안 당한다. “이 친구, 유행에 민감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온다. 나는 편견과 공감은 결국 경험의 유무 혹은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내가 경험이 많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다. 특히 술은 아직 한참 멀었다). 내가 보기엔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나 술에 관한 좋은 기억은 하나

씩 있는 것 같다. 그런 좋은 기억이 쌓이면 무엇이든 친근해지기 마련이다.

막걸리는 다른 어떤 술보다도 억울한 편견이 좀 많은 것 같다. 막걸리가 내게 그렇듯,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친근한 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이 먼저, 오늘은 막걸리를 마시러 가지러 가자고 제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치악산의 정기를 담은 막걸리’를 갖다놓고 판다는 주점으로 자랑스레 일행들을 안내하는 것이다. 조만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